사순 제 1주일 강론(2019년 3월 10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 첫 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온갖 유혹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시간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기 바로 전에 왜 광야로 가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고요와 침묵의 장소, 그리고 온갖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장소가 됩니다. 기도의 장소이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가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도 안락하고 화려한 궁궐을 떠나 인도 북쪽에 있는 황무지로 갔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히라 광야로 갑니다. 유다교도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이집트의 궁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탈출시키고 인도하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또 초대 교회의 많은 수도자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르죠. 광야는 이렇듯 깨달음을 얻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광야는 수도승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자들이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전념 했었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갈 수는 없지만, 대신 피정을 떠납니다. 피정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을 보다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종의 피정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일 앞두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희 신부들도 부제나 사제 서품 전에 한 달씩 피정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해 서쪽에 있는 유다 광야입니다. 지난 성지 순례 때 이 광야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곳곳에 벼랑과 협곡이 있고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간 기도와 단식으로 피정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약한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으로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삶과 같은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인생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 순간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순간이 있지요. 바닥을 치는 순간이 언제든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저 하느님께 맡기면서, 하느님 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고독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많은 소음과 조급함과 산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적 고요와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지 못합니다. 말을 안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내적 고요가 필요하죠.

광야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단식하던 예수님이 악마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빵에 대한 유혹인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유혹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성적인 유혹도 따지고 보면, 생존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손 번식을 위한 성적인 유혹이 그렇게 강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생명 연장에 대한 유혹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생존에 관한 유혹에 약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가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고, 여러가지 사기를 치고, 신제품 기술을 빼내서 경쟁회사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존에 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관한 유혹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죠. 주변 사람들 다 참견하고, 내가 다 컨트롤 하고 싶고, 남에게 간섭 받기 싫고… 인생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 보다도, 예수님 보다도, 내가 먼저죠. 내가 하느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도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 잘 안들어 주면 하느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되면 신앙도 다 버립니다.

세 번째 유혹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는 교만에 대한 유혹입니다. 아담의 원죄부터 이어져 온 아주 질긴 유혹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교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랬죠. 늘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착한 척하고, 기도하고, 시장이나 성전 앞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했죠.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 받기 좋아하고, 사랑받고 싶고… 조금만 무시 당해도 난리 납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가지 유혹들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 세 가지입니다. 생존에 대한 유혹,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만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악마와 옥신각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어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세 번의 유혹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한방에 대응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모두 구약 성서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 8:3)”,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 (신명 6:13)”,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 6:16).”

신명기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 하느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했는데, 빵만 찾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야 했건만, 다른 신들을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 차례 시험합니다. 그들은 번번히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만 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걸려 넘어진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유혹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인생의 유혹들입니다. 빵을 움켜 쥘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말씀을 품을 것인가? 내 하고픈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뜻에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중심 자리를 내어 드릴 것인가?

40일간의 사순시기 동안 우리도 광야로 나가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 맘대로 정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순시기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총의 시기”라고 말입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보다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결심 하나씩 새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상처주고 상처 받았던 일이 있었다면, 다 잊고, 용서하고, 이번 사순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부터, 묵묵히, 알게 모르게, 조용히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지만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올해 맞이하게 되는 부활은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부활이 되도록 잘 준비해 갑시다.